

#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

2021. 8. 12.

관계부처 합동

## 순서

I.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.....	1
II. 그간의 정책지원 현황.....	3
III. 추가 지원 방안 .....	5

# I. 최근 수출입물류 동향

◇ 수요 증가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해 해상·항공 모두 **고운임** 지속

## 1 해운 물류 동향

□ (운임)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등한 **해상운임**은 올해 초 보합세였으나, 2분기 들어 **상승폭 확대\***, 특히 **美동안·유럽항로 운임 급등\*\***

\* 상하이운임지수(SCFI) : (20.1)999 → (20.7)1,050 → (21.1)2,872 → (21.4)2,830 → (21.7)4,037 → (8.6)**4,226**

\*\* 美동안 운임(\$/FEU) : (20.1)2,898 → (20.7)3,369 → (21.1)4,745 → (21.4)5,536 → (21.7)9,636 → (8.6)**10,167**

유럽 운임(\$/TEU) : (20.1)1,040 → (20.7)906 → (21.1)4,384 → (21.4)4,151 → (21.7)7,014 → (8.6)**7,418**

○ 주요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**물동량 증가** 및 **코로나 19**로 인한 **항만 적체**에 따른 **선복부족** 현상으로 **운임 상승**

□ (항만) **코로나19**로 해외항만 적체 및 내륙운송 연계가 지연되어, 정기선박의 **순환율 감소\*** 및 항만내 **수출화물 적체\*\***가 심화

\* 특정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차 수(예: 미주서안 운항에 6주 소요시 선박 30척으로 주 5항차 운영이 가능하였으나, 8주 소요 시 주 3.75항차만 운영 가능)

\*\* 운항스케줄 준수율 : (20.6)77.7% → (20.8)63.7% → (20.10)52.3% → (21.2)34.5% → (21.6)**39.5%**

○ **부산신항 장치율\***도 81%로 평시보다 높은 수준으로 **일부 적체 발생**

\* 연평균 장치율(%) : (19)73.4% → (20)74.9% → (21.4)81.2% → (21.5)80.6 → (21.6)80.5% → (21.7)**81.0%**

□ (수출물동량) **'20.8월부터 증가 추세로, '21.상반기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(3,242천TEU)**은 전년 동기대비 **11.1% 증가\***

\* 주요 항로별 수출물동량 : (미주) 534천TEU, 24.2%↑, (유럽) 326천TEU, 17.9%↑ 등

□ (선복량) 전 세계 가용선박들이 **총투입되면서 유휴선박 비율\***은 역대 **최저** → 단기간 내 **충분한 선박공급 확대**에 구조적 한계

\* 유휴선박 비율 : (20.6)11.2% → (20.8)4.1% → (20.10)1.8% → (21.2)1.0% → (21.6)**0.7%**

## 2 항공 물류 동향

□ (운임) **코로나19**에 따른 **여객기 화물칸(Belly-Cargo) 공급 감소\*** 및 **항공화물 수요 증가** 영향으로 **고운임 상태\*\*** 지속

\* 여객기 화물칸(Belly-Cargo) 수송실적 : (19.12월) 94,063톤 → (21.6월) 32,185톤

\*\* (홍콩-북미 노선) (20.1분기) 4.03\$/kg → (21.3월) 5.48\$/kg → (21.6월) 7.89\$/kg

(홍콩-유럽 노선) (20.1분기) 3.08\$/kg → (21.3월) 4.05\$/kg → (21.6월) 4.34\$/kg

□ (공급) **여객기 운항 축소\***에 대응하여 국적사 보유 **총 37대 화물 전용기\*\*** 활용, **유휴 여객기 20대 화물기 개조\*\*\*** 운영 중

\* 여객 정기노선 운항실적 : (19년 동계) 45개국, 255개 노선, 주당 4,714회 운항 → (21.7월 말 기준) 31개국, 74개 노선(△71%), 주당 380회(△92%) 운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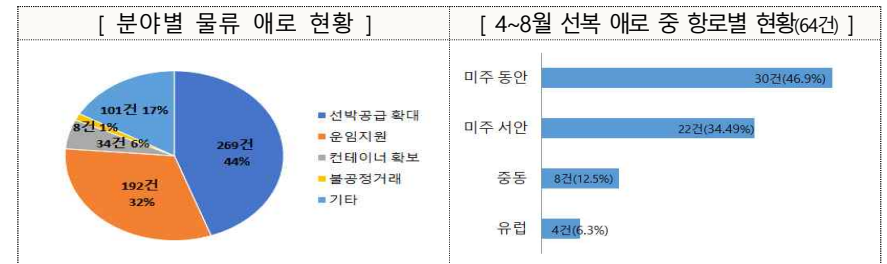
\*\* 대한항공 23대, 아시아나 12대, 에어인천 2대, \*\*\* 대한항공 16대, 아시아나 4대

○ 다만, '21년 **화물기 운항 편수를 대폭 증편**(전년동기 대비 84.1%) 했으나, 기존 **해운 물동량이 항공으로 일부 전환** → **물동량 해소에 한계**

## 3 수출기업 애로

□ (현황) 수출기업 애로 접수 결과(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, '20.12~'21.8), ①**선박공급 확대(44.5%)**, ②**운임지원(31.8%)**, ③**컨테이너 확보(5.6%)** 順으로 제기

○ 특히,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**'선복 부족'** 애로가 **급증**하였으며, **항로별로는 미주**에 기업 애로가 집중



■ 세계경기 회복 등에 따른 **물동량 증가, 선적공간 부족** 등은 당분간 **해소가 어려워 하반기도 고운임 지속 전망**

\* '21년 전망 : (해상, 앵드루리) 세계 물동량 +10.1% vs 선박공급 +4.2% (항공, 국제항공운송협회)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+13.1%, 운임 +5%

## II. 그간의 정책지원 현황

◇ 물류긴급대책('20.12), 경제중대본(5.12), 비상대응TF(5.21, 6.7) 등을 통해  
 ①공급 확대, ②중기전용 선박배정, ③물류비 지원 등 총력 대응

### 1 선박, 항공 등 공급 확대

① (선박 투입) 국적선사 임시선박을 총 49척 투입('20.8~'21.8.6)하여  
 화물 13.3만TEU\* 수송 및 유럽向 신조선박(1.6만TEU급) 8척 투입

\* (미주) 40척, 119,821TEU / (유럽) 3척, 7,686TEU / (동남아) 6척, 5,881TEU

○ 특히 미주항로의 경우 7월에 월 최대 규모인 9척의 임시선박 투입

\* (월별) ('20.8~12) 월평균 2.2척 ('21.1~4월) 월평균 2.8척, (5월) 6척, (6월) 5척

② (전세기 운항 등) 유휴 여객기 활용하여 2차례 특별전세기 운항\* 및  
 규제 완화를 통한 객실내(친장 수하물칸, 좌석내) 화물 적재 허용('20.4월~)

\* (1차, '20.4월) 중국, 인도네시아 / (2차, '20.5월) 일본, 독일  
 총 61개社의 진단키트, 반도체, 의료용 방호복, 화장품 등 총 85톤 규모 화물 운송

### 2 中企 전용 선박 배정

① (중기 선적공간 지원) 美서안·동안 및 유럽항로에 총 49회\*,  
 9,797TEU의 전용 선박 배정('20.11~'21.8.6)

\* 美서안(31회, 8,865TEU), 美동안(9회, 482TEU), 유럽(9회, 450TEU)

② (대중소 상생형 지원) 포스코·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중소수출기업의  
 선박 확보를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\* 추진중('21.7월~)

\* (포스코) 장기계약선박의 유휴공간에 중기화물 공동선적 추진(15만톤/년),  
 (대한항공) 북미노선 화물기에 중기화물 우선적재 추진(주간 2회, 3톤/1회)

## 3 물류비·금융 지원

① (물류비 지원) '21년 총 263억원 규모로 수출바우처 사업 등을  
 통해 해상·항공운임 지원 추진중

과제명	예산규모
① 수출바우처 기업당 물류비 지원한도* 확대 * 1천만원 → 2천만원	60억원
② 온라인 공동물류 중소기업 운임지원	40억원
③ 해외전시회, 마케팅 등 예산을 운임 지원에 활용	21억원
④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	142억원(2차추경)

② (금융 지원) 중소 수출기업 대상 특별융자 제공 및 무역보험 혜택 연장

○ 중소 수출기업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 지원(7월말~)

\* 금리 연 1.5%, 융자기간 3년(2년거치, 1년 분할상환), 기업당 최대 3천만원

○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료 할인 등 긴급  
 유동성 지원책\* 연장 시행('21.6→'21.9월말, 하경정)

\* (수출제작자금 지원) 수출신용보증(선적전) 무감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50% 할인,  
 (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) 수출신용보증(매입) 보증료 50% 할인

## 4 항만 적체 완화 등

① (항만 적체 완화) 수출용 자동차 및 신선화물\* 등 세관신고 절차  
 간소화, 부산신항 옹동 배후단지 등 대체 장치장으로 확보 등

\* 신선화물 환적 지원을 위해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 보관창고 신축·운영(7월~)

○ 7월말부터 부산신항 '서'컨 배후단지, 안골 등 임시 보관장소 공급

\* 서부 컨테이너 배후단지(7.20일~, 7만m2 우선 제공, 향후 추가확대), 안골장치장(8.10일~, 695TEU)

② (컨테이너 공급) 해진공 리스사업 지원(43만대) 및 수은 대출지원 HMM 자체  
 발주분(1.7만대) 등 총 6만대의 40피트 컨박스 공급 추진(~7월, 4.6만대 공급)

③ (기타)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\* 운영 연장('20.12월~, '21.6→12월) 및  
 우리 기업의 애로접수 및 해소 지원(~8.6일 누계, 총 604건 처리)

\* 산업부, 해수부, 중기부, HMM, 무역협회, 해운협회, 국제물류협회 등 민관합동 구성

### Ⅲ. 추가 지원 방안

◇ 지속되는 물류수급 차질에 대비하여, 기존의 단기 지원대책 보강 및 중장기적으로 상생형 물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 마련

분야	기존 지원방안(~7월)	추가 지원방안(8월 이후)
공급 확대	· 미주 중심 임시선박 투입	· 성수기 대비 <b>최대 규모의 임시선박</b> 투입 · <b>동남아 항로 추가 투입</b> · <b>인센티브 제공</b> → 선사 자발적 공급 확대
중소 전용선박	· 미주 430TEU/주, 유럽 50TEU/주	· <b>미주 700TEU/주</b> 추가 배정 · <b>동남아 120TEU/주</b> 신규 배정 · <b>장기운송계약체결 지원</b> (선박+운임지원)
중소 운임/금융지원	· '21년 총 121억원 규모 지원 · 물류비 특별용자 지원	· <b>142억원 추경 예산 신속 집행</b> · 중진공-수은-무보 등 <b>정책금융 지원 확대</b>
항만적체 완화	· 부산신항 임시보관장소 확충 · 컨테이너 4.6만대 공급	· <b>북항 추가 + 응동 장치장 연내 구축</b> · <b>6만대 공급完(~10월) + 1.38만대 추가(~9월)</b>
상생형 물류생태계	·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	· <b>인센티브 제공</b> → 대중소 상생지원 확대, · 장기운송계약/표준거래계약 확대 유도 · <b>물류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</b> 구축

#### 1 공급 추가 확대

① (임시선박 확대) 국적선사의 가용선박을 총동원하여 8월중 **미주·동남아항로에 월간 최대규모인 임시선박 총 13척** 투입 추진

○ (미주) 8월중 임시선박 9척\* 투입 예정(美서안 8척, 美동안 1척)

\* 투입 계획 : (8.9) 6,500TEU (8.10) 4,600TEU, (8.12) 2,700TEU, (8.15) 1,800TEU, (8.24) 5,000TEU, (8.25) 6,500TEU, (8.26) 3,400TEU, (8.31) 5,000TEU, (8.31) 5,000TEU

→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 대비 7~8월 9척씩 집중 투입한 것에 이어, 9월 이후에도 월 최소 6척\* 이상 임시선박을 지속 투입할 계획

\* (HMM) 월 평균 4회 이상 / (SM상선) 월 평균 2회 이상

○ (동남아) 연근해선사 간 한-일항로 공동운항\*을 통해 유휴선박을 확보하여 8월 중 동남아항로에 4척\*\* 투입 예정

\* 예) 1척씩 운항 중인 5개 국적선사간 선박 공유(4척에 공동선적) → 유휴선박 1척 확보

\*\* 투입 계획 : (8.9) 700TEU (8.10) 1,000TEU, (8.14) 700TEU, (8.25) 700TEU

② (인센티브 제공) 수출화물 처리실적이 전년대비 증가한 선사\*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박의 추가 투입 및 국내배정 선박 증대 유도

\* ① 북미, 유럽向 수출화물 적재 '컨' 전년 동월 대비 10% 이상 증가한 선사  
② 동남아向 수출화물 적재 '컨'이 전년 동월 대비 5% 이상 증가한 선사

○ 항만공사 재원\*으로 북미, 유럽, 동남아항 수출화물 적재 '컨'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인센티브(컨테이너당 2만원) 지급(8말~)

\* 항만공사 재원 총 26.5억원(부산 20억, 여수광양 5억, 인천 1억, 울산 0.5억)

③ (항공운송 지원) 화물기 운항(정기·부정기) 인허가 적극 실시 및 여객기의 화물용 개조 신청 시 허가 등 → 운송량 증대 해소\* 지속 지원

\* '20년 화물기는 전년 대비 운송량 36% 이상, 운항 편수는 80% 이상 증가

○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를 '21년 상반기 3,196편\*에서 하반기 3,300편으로 증편 추진

\* ('21.1.1, 한↔미 화물수송) 대한항공: 2,184편(21만t) / 아시아나: 1,012편(12만t)

#### 2 중기 전용선박 확충

① (전용선박 확충) 중기 전용 선적공간을 주당 1,300TEU\*로 확대

\* (기존) 미주 430TEU, 유럽 50TEU → (확대) 미주 1,130TEU, 동남아 120TEU, 유럽 50TEU

○ (미주向) ①美서안向 정기선박(HMM)에 100TEU/주 추가 배정,  
②추가 투입(월 4척↑, HMM)되는 임시선박에 600TEU(항차당) 별도 배정

○ (동남아向) 동남아向 정기선박(고려해운)에 120TEU/주 신규 배정

② (장기계약 지원) 중소화주가 추가적인 운임상승 걱정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운송계약 물량\*을 지정하고 운임비 지원\*\*도 병행

\* 美서안向 중기전용 선복물량 중 350TEU/주를 장기계약 물량으로 전환하여 지원

\*\* '21년 추경예산 활용, 장기운송계약 물류바우처 발급(기업당 최대 2,000만원, 보조율 70%)

③ (대중소 상생) 현대글로벌비스 자동차운반선에 중기화물 선적\* 추진(8월~)

\* (지원대상) 농기계, 코일, 케이블 드럼, 기계류 등, \* 무역협회와 MOU 체결(7.21)

○ 또한, 동반성장지수 반영\*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 확대 유도

\* 제64차 동반위에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신규 지표를 신설·평가를 의결('20.12.9)한바, 동반성장지수 '국가적 재난 지원' 지표(3점)상 가점 반영 추진(~'21년까지 한시적용)

**3 물류비·금융 지원**

① (물류비 지원) 금번 추경 통해 확보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예산 142억원을 신속 집행, 중소기업 1,013개사 대상 운송비 등 지원\*(8말~)

\* 기업당 최대 2,000만원(정부지원금 70%, 자부담 30%) 한도내 국제운송비 지원

< '21년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내역 >

대상 사업	예산(억원)	수혜기업(개)	비고
물류바우처(산업부)	33	232	· 국제운송비 + 현지 물류비 지원 · 기업당 2천만원 × 70%(보조율)
물류바우처(중기부)	109	781	· 국제운송비 지원 · 기업당 2천만원 × 70%(보조율) * 수출액 규모별 지원한도: (100만불 미만) 1천만원 (보조율 70%), (100만불 이상) 2천만원(보조율 70%)
소계	142	1,013	

② (금융 지원) 물류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 확대

① (중진공) 물류비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등에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1,000억원 규모 융자지원\* 추진(8말~)

\* (대상) 물류비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등 (한도)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, (기간) 5년 이내, (금리) 연 2.65%

② (수은) 운임 상승으로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수출 운임 상승분에 대해 300억원 규모의 수출촉진자금대출 지원\* 추진(8말~)

\* (대상) 운임이 6개월前 대비 50% 이상 상승한 기업, (금리우대) 최대 중견 △0.3%p, 중소 △0.5%p, (한도) 직전 6개월간 운임 상승분의 100% 이내, (기간) 1년 이내

- 또한, 수출입·해외사업 관련 운영자금 지원 확대(한도 10%p 확대) 및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(최대 1년 이내, 한도·금리 기준과 동일) 추진

③ (무보) 물류관련 피해 기업 대상\*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최대 2배 확대\*\*, 단기수출보험금\*\*\* 지급기간 단축(현 2~3개월) 등 혜택 신설(8월~)

\* (지원대상) ①최근 1년 또는 전년도 對미국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, ②수출물류관련 직접피해를 입은 기업(납기지연에 따른 수입자의 수출계약 파기된 경우)  
\*\*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, 금융기관이 동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서비스로, 매입 보증한도를 2배로 확대  
\*\*\* 수출기업이 수출계약 체결·이행 후 수입자 등으로부터 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

**4 항만 적체 완화**

① (장치장 등) 부산항 신·북항에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확충\*(~9월), 신항 옹동 배후단지에 영구 장치장\*\* 구축 및 운영 추진(연내)

\* (신항) 서측 배후단지 내 4만 m<sup>2</sup> 추가 제공(약 1,400TEU 보관 가능) (북항) 우암부두 내 일부 제공(1만 m<sup>2</sup>, 1,900TEU 이상 보관 가능)  
\*\* (위치/보관능력) 옹동 배후단지 / 3단 이상 적재, 2,500TEU 이상 보관 가능

② (컨테이너 공급) 국적 원양선사 '컨' 박스 조달을 위해 상반기 발주 6만대(~10월) 외에 추가 1만 3천 8백대\*를 하반기 신속 공급(~9월)

\* HMM : 20피트 일반 '컨' 8천대 40피트 냉동 '컨' 2.3천대 / SM : 40피트 일반 '컨' 3.5천대

**5 상생형 물류생태계 조성**

① (우수선화주인증제) 우수선화주인증\* 기업을 현행 14개사에서 연내 20개사 이상으로 확대하고, 중소 화주기업을 3개사 이상 추가 선정

\* 해운법상 장기운송계약 체결, 국적선사 이용 등 선화주간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선·화주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, 금융·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('20.2월~)

② (운송계약관행 개선) 증장기적으로 운임변동 리스크 대응 및 화물 운송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계약 관행 개선 추진

○ (장기운송계약) 장기계약 확대를 위해 우수선화주인증기업 선정시 장기계약 배점기준 확대(7→15점) 추진 및 인센티브 제공 검토(21.下)

○ (표준거래계약서) 활용도가 낮은 기존의 표준거래계약서를 확대 보급\*할 수 있도록 금융 등 인센티브 제공 검토 추진(21.下)

\* 해운법에 따라 해운협회가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운송계약서를 제공·보급(19.9월) 중이나 기존 거래관행 유지, 잦은 계약 변경 등으로 실질적 활용도는 낮은 상황

○ (협업체 활용) 선화주 상생협력 체결\* 후속으로 '선화주 경쟁력강화 협의회' 운영을 통해 운송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

\* 「해운협회-무역협회 간 선화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」 체결(6.29)

③ (통합물류정보 제공) 선·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통합된 물류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한 통합물류정보\* 제공 추진(21.下)

\* (통합제공 정보(안)) 선박 관련 정보(운항 스케줄, 부킹 현황 등), 대체장치장 현황, 항만 작업 현황, 컨테이너 반출입 현황 등

○ 산업부·해수부·항만공사·선사 등 관계부처·유관기관과 실무 TF 운영 (7월~)을 통해 정보공개 범위 우선 논의 후 플랫폼 채널 등 협의 추진

☞ 향후에도 범부처 비상대응 TF\*를 통해 물류동향 지속 모니터링과 함께, 수출입업계 애로 즉각 해소 및 증장기적 제도개선 과제 추진

\* 산업부/해수부(1급 공동 반장), 기재부, 국토부, 중기부, 관세청, 코트라, 중진공, 해진공 등